外援減縮과 國內 資本動員의 促進策

——Reduction of foreign aid and promotional policy of domestic capital formation——

金　性　滿

……目　次……

Ⅰ. 序　論
Ⅱ. 美國의 對韓經援 減縮과 海外投資의 抑制
Ⅲ. 經濟協力, 國內貯蓄과 海外貯蓄
　1. 外資導入의 現況과 問題點
　2. 國內貯蓄과 海外貯蓄
Ⅳ. 國內 資本動員의 促進策
　1. 國內 資本動員의 促進方案
　　가. 貯蓄및 投資廣大를 爲한 與件造成
　　나. 旣存資本의 動員과 實物貯蓄의 投資化
　　다. 民間部分의 消費節減과 投資增大
　　라. 資本의 動員促進과 政府의 役割
　　마. 外國援助의 投資活用
　2. 그 問題點
Ⅴ. 結　論

Ⅰ. 序　論

資本形成, 資本動員, 資本蓄積은 國民의 生產性을 높이고, 生產 可能性을 擴大하고, 貧困의 惡循環을 打開 시켜주는 最大의 지름길이다. 資本蓄積 내지 資本形成의 問題는 特히 生產力의 發展水準이 낮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重要한 課題가 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後進國에 있어서는 人口가過多한데 資本施設이 充分치 못하므로, 資本施設에 比하여 勞動人口가 相對的으로 過剩되므로, 所謂 Malthus的 失業을 發生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後進國家에 있어서는 資本蓄積만이 不完全 就業을 解決하여 주며 後日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約束하여 줄 것이다. 오늘날의 各國 經濟社會를 뒤돌아 볼때 失業의 原因은 勞動問題에서 보다도 資本의 面에서 더욱 큰 缺陷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現代社會는 迂廻生產의 方法을 採擇함으로써 限定된 資源을 高度로 利用하고, 現在의 直接消費 보다 將來의 더욱 훌륭한 消費를 얻을 수 있도록 未完成 製品 혹은 中間 生活品만을 몇번이고 거듭 生產해 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資本形成은 커지는 것이며, 消費財 準備라고나 할까 生產에 動員되고 財貨量은 많아 지는 것이다.

한나라 經濟의 發展은 觀念的인 希望과 抽象的인 國民意慾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量的 成長과 質的인 變革을 具體化 시키기 爲해서는 資本이 있어야 한다. 急速한 經濟成長은 生產의 極大化를 이것은 投資의 量的인 極大化와 그 適正한 配分과 活用을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삼는다. 國民貯蓄의 增大 및 資本動員이라는 課題는 어떻게 해야 國民所得內의 消費分을 減少 시

킬 수 있은며, 增大된 貯蓄을 어떻게 하면 漏出(leakage) 없이 効率的인 投資로 誘導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로 歸着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旣存 國富를 生産部門으로 效率있게 活用 시키는 問題도 결코 忘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광범한 課題를 添加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現在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모든 旣投資分의 生産效率의 上昇 또는 非生産的인 財産의 生産面에로의 動員까지 包含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成長經濟學的 觀點에서 볼때 後進經濟는 資源의 調達과 配分 그리고 그 管理의 諸過程으로 把握되어야 하며, 따라서 先進經濟 처럼 貨幣所得의 單純한 量的 成長이 問題가 되지 않고 構造的 變化 即 近代的 過程의 進行 與否가 問題 된다. 이를 政策的 觀點에서 보면 大部分의 投下資源이 私的 利潤動機에 依하여 管理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하더라도 資源의 調達과 配分過程을 直接的으로 連結 시키고 投下資源의 廻轉率을 높일 수 있는 制度의 改善과 보다 積極的이고 直接的인 貨幣的 내지 實物的 政策手段이 要請된다. 近代的 經濟與件의 造成이야 말로 後進國이 飛躍段階로 들어 갈수 있는 前提 條件이라 할 수 있다.

經濟의 高度成長은 많은 投資를 必要로 한다. 그러므로 後進國의 經濟開發은 結局 需要가 旺盛하게 일어나되 그것이 投資需要로 主導 됨으로서 可能하다. 그러나 自由經濟 體制下에서 特히 援助經濟下에서 膨脹된 消費習性을 그대로 지닌채 經濟의 高度成長을 達成한다는 것은 民間消費水準을 繼續 提高시키면서 投資는 그 以上의 速度로 增大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課題에 直面하게 되며 이는 그만큼 더 많은 資源의 供給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資源의 供給이 不充分한 實情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實이고 보면, 우리나라 經濟開發의 急速的 推進은 不可避하게 對外依存度를 加重하게 되거나 對內的인 安定與件을 害치기 쉬우며, 한편에 있어서는 經濟構造上 縱的 또는 橫的聯關 關係의 摩擦을 가져 오기 마련이다.

昨今에 일어나고 있는 世界經濟의 움직임은 우리의 投資財源 確保 問題가 容易치 않을것 같다. 美國은 動搖하는 弗貨 價値의 防衛를 爲해 外援消減과 其他의 間接的인 政策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赤字의 最大 要因인 民間資本의 流出을 막기 爲한 直接的인 手段을 採擇했다. 이러한 諸措置가 成功하면 余他 國家의 弗貨不足으로 國際金融에는 緊縮이 올것이며, 英國의「파운드」貨의 評價切下에 刺戟되어 各國이 벌이고 있는 高金利 競爭은 先進國으로 부터의 借款條件을 더욱 不利하게 할 것이다. 이와같은 外貨의 利用性이 적어지고 外貨의 Cost가 上昇하는 趨勢에 비추어 볼때 이제 우리는 正面으로 資本動員의 問題와 對決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資本의 動員問題는 이제 새삼스럽게 提起되는 問題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外國人의 貯蓄에 依해 增加된 所得을 마치 自己의 貯蓄에 依해 增加하는 所得인양 政府消費에 탕진하는 오늘의 消費風潮를 是正함과 동시에 國內 貯蓄을 效率的으로 動員하는 一大施策을 必要로 하는 歷史的 段階가 오지 않았는가 한다. 筆者는 本稿에서 이러한 見地아래 主로 工業化를 爲한 國內 資本動員의 促進方案과 그에 따른 諸 問題點에 對하여 韓國의 實情을 土台로 하여 分析, 檢討코저 한다.

Ⅱ. 美國의 對韓經援減縮과 海外投資의 抑制

1949年 美國은 244億弗이라는 史上 最高의 金 保有國으로 登場 했고, 全世界가 갖고 있는 金의 三分之二를 超過하는 尨大한 金保有를 背景으로 世界經濟의 主道權을 掌握 했었다. 그러나 美國이 戰後復興을 돕기 爲해 莫大한 援助를 提供하고 冷戰에 所要되었던 戰費와 越南戰에 每年 美國의 GNP의 3%라는 尨大한 軍事費 支出 (67年度 約 250億弗 支出) 로 말미암아 오늘날 大幅的인 國際收支의 赤字를 超來하였으며 〔表1〕 그로因한 金의 大量流出은 「달러」 不安이라는 苦悶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로버트·트리핀」이 指摘한 바와 같이 金과 「달러」의 危機는 1968年度에 到來하여 「달러」의 絕對的 信認을 잃게 하고, 美國의 國際收支의 繼續的인 惡化, 金流出 「달러」에 對한 金 價値의 動搖等으로 오늘날까지 長期趨勢的으로 「달러」의 危機는 持續되어 온것이다.

美國의 國際收支 總括

〔表1〕 (通貨單位: 100萬$)

年	財貨, 貨物運賃및商品保險料	其他서비스와 個人換	中央政府換收支	非金融部門資本			金融部門資金과金		純誤差와脫漏
				直接投資	其他民間	中央政府	民間投資	中央機關	
1963	4,918	1,611	—2,256	—3,252	—701	—1,218	—	1,140	—242
1964	6,530	2,485	—2,287	—3,437	—1,794	—1,188	—	549	—858
1965	4,401	3,119	—2,271	—4,595	—598	—1,365	—	1,624	—315
1966	3,506	2,751	—2,411	—4,953	461	—1,405	—	2,542	—489
1967	3,470	2,238	—2,373	—4,054	—426	—2,441	—	4,590	—1,004
1968	130	3,417	—2,242	—4,360	3,383	—2,387	—	2,701	—642

脚註: 1) 商品保險의 推計字는 利用할 수 없음.
2) 民間金融機關은 中央金融機關에 包含됨.
資料: 世界統計 年鑑, 國際聯合, 1969

美國이 貿易收支의 改善을 爲한 政策으로서 60年度初 以來 採擇 되어온 外援의 削減, 軍事費 支出의 抑制 「Buy American」 政策 그리고 民間資本의 海外流出 抑制 等은 우리나라의 外資利用性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이 他國에의 輸出增進과 輸入統制라는 硬直된 貿易政策 때문에 우리商品 輸出에도 적지않은 影響을 끼치고 있다. 또한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解放後 오늘날 까지 韓國經濟의 成長과 經濟安定에 至大한 效果를 끼쳐왔던 美國의 對韓經援도 1957年을 絕頂으로 하여 美國의 國際收支 惡化와 더불어 1958년 부터 漸次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對한 美國의 經濟援助 가운데 큰 比重을 차지 하여온 AID 支援援助가 70年 5月 26日字로 締結된 10백만「달러」를 마지막으로 終結 되었다. 이로써 1953年 以來 美國의 援助를 받아온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自由中國에 이어 美國의 24번째의 支援援助 終結國이 된 것이다. 1970年中 우리나라에 對한 美國의 新規 援助規模는 전기 AID支援 援助와 剩餘農產物 援助를 합하여 總 83백만「달러」로 前年에 이어 繼續 減少하였다. 年中 導入實績은 AID援助 21백만「달러」

PL480號 (第1款), 62백만「달러」, 도합 83백만「달러」로 前年보다 22%가 줄어들었다. 한편 1970年도 韓美 剩餘農産物 援助協定의 附帶條件을 보면 農産物 販賣代錢의 우리나라 使用比率은 前年보다 5%가 떨어진 60%로 前年에 이어 繼續 引下 되었다

韓國의 年度別 援助 受取額

〔表2〕 (單位:1,000$)

年	合 計	U. S. A				C R I K		UNKRA
		GARIOA	ECA&SEC	PL 480	A I D	S U N	S K O	
1948	179,593	179,593	—	—	—	—		—
1949	116,509	92,703	23,806	—	—	—		—
1950	58,706	—	49,330	—	—	9,376		—
1951	106,542	—	31,972	—	—	74,448	—	122
1952	161,327	—	3,824	—	—	10,229	145,235	1,969
1953	194,170	—	232	—	5,571	8,365	150,422	29,580
1954	153,925	—	—	—	82,437	14,049	36,142	21,297
1955	236,707	—	—	—	205,815	4,950	3,761	22,181
1956	326,705	—	—	32,955	271,049	24	307	22,370
1957	382,893	—	—	45,522	323,268	—	—	14,103
1958	321,272	—	—	47,896	265,629	—	—	7,747
1959	222,204	—	—	11,436	208,297	—	—	2,471
1960	245,393	—	—	19,913	225,236	—	—	244
1961	199,245	—	—	44 926	154,319	—	—	—
1962	232,310	—	—	67,308	165,002	—	—	—
1963	216,446	—	—	96,787	119,659	—	—	—
1964	149,331	—	—	60,985	88,346	—	—	—
1965	131,441	—	—	59,537	71,904	—	—	—
1966	103,261	—	—	37,951	65,310	—	—	—
1967	97,018	—	—	44,378	52,640	—	—	—
1968	105,856	—	—	55,927	49,929	—	—	—
1969	107,264	—	—	74,830	32,434	—	—	—
1970	82,636	—	—	61,703	20,933	—	—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1

Ⅱ. 經濟協力 및 國內貯蓄과 海外貯蓄

1. 外資導入의 現況과 問題点

1959年 DLF 借款을 嚆矢로 하여 流入되기 始作한 有償「베이스」의 우리나라 外資導入은 其後 그形態 導入先等의 여러가지 側面에서 多樣化 되고 規模面에서도 해를 거듭 할수록 擴大되어 왔다. 이제 몇가지 計數的 側面에서 其間의 外資導入 展開過程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總外資導入 規模面에서, 1971年 6月末 現在 物資到着基準에 依한 總導入額은 約 23.6億

弗에 達하고 있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債務가 確定된 것을 基準으로 한다면 그導入 規模는 위의 數値를 훨씬 上廻할 것은 물론이다. 政府의 外資導入統計는 지난해 까지는 協定締結(財政借款의 경우) L/G 또는 E/L의 發給(商業借款) 및 認可(直接投資)를 各各 基準으로 發表 되어온 反面에 昨年(1971)부터는 一律的으로 物資到着을 基準으로 發表되고 있기때문에 確定基準으로서의 最近數値는 把握하기가 어렵다. 1970年末 현재 確定基準으로서의 總規模가 約 29.9億弗에 達하였고 이때 後者 即 物資到着基準으로서는 20.6億弗이 었다. (表4 參照)

形態別 國別 外資導入現況 (物資到着基準)

〔表3〕 (1971年 6月末現在) (單位: 百萬弗)

	美 國	日 本	其 他	合 計
財政借款	463.4(66.4)	128.8(18.5)	105.8(15.1)	698.0(100.0)
商業借款	493.2(32.6)	392.3(25.9)	626.8(41.5)	1,512.3(100.0)
借款計	956.6(43.3)	521.1(23.6)	732.6(33.1)	2,210.3(100.0)
外國人投資	99.3(65.4)	31.4(20.7)	21.2(86.1)	151.9(100.0)
合計	1,055.9(44.7)	552.5(23.4)	573.8(31.9)	2,362.2(100.0)
※ 技術導入 (件)	63	180	22	265

資料: 經濟企劃院
註: 1) ( )內는 國別 構成比임.
2) 技術導入은 取消및 滿了를 包含하는 總認可件數임.

年度別 形態別 外資導入 現況 (確定基準)

〔表4〕 (1970年 12月末 現在) (單位: 百萬$)

	財政借款	商業借款	外國人投資	合計
1959 ~ 61	20.4(100.0)	—(—)	—(—)	20.4(100.0)
1962 ~ 66	327.8(49.4)	303.8(45.8)	32.1(4.8)	663.6(100.0)
1967	73.0(29.3)	155.4(62.3)	20.9(8.4)	249.4(100.0)
1968	61.1(10.6)	483.9(83.9)	31.8(5.5)	576.9(100.0)
1969	233.1(25.9)	622.8(69.3)	42.9(4.8)	898.9(100.0)
1970	159.3(25.5)	335.1(57.7)	85.8(14.8)	580.2(100.0)
合計	874.9(29.3)	1,900.9(63.6)	213.6(7.1)	2,989.3(100.0)

資料: 經濟企劃院
註: 1) 財政借款은 協定締結, 商業借款은 G/L, E/L 發給. 外國人投資는 認可를 각각 基準으로 한것임.
2) ( )內는 形態別 構成比임.

上記의 數値들은 우리나라 外資導入法에 依한 債務期間 3年 以上의 長期外資만이고 여기다가 外資管理法에 依하여 들어오는 3年 未滿의 短期債務 까지도 包含한다면 對外債務 總規模는 이보다 더욱 커질 것이 分期하다. [1]

註: 1) 경제기획원 간, 경제백서, 1971, PP.199~208 參照

둘째, 外資導入의 形態別現況을 살펴보면 1971年 6月末現在 物資到着基準 23.6億弗은 借款形態로 22.1億弗, 直接投資形態로 1.5億弗로 構成되어 借款形態가 全體의 93.5%를 占하고있다. 또한 借款은 다시 政府「베이스」의 財政借款이 約 7.0億弗, 民間「베이스」의 商業借款이 15.1億弗로 構成되어 外資形態別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外資導入은 商業借款 形態가 中樞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外資導入 國別 構成에 있어서는 全體의 44.7%인 10.6億弗을 美國으로부터 23.4%인 5.5億弗을 日本으로부터 導入하여 이 두나라의 比重이 全體의 68%를 넘고 있다. 其他 32%가 西獨을 비롯하여 英國, 이태리 等 諸國과 IBRD, IFC, ADB 等 國際機構로부터 導入된 셈이다.

이 中에서 特히 美國, 日本으로 부터 導入된 外資를 形態別로 分析해 보면 美國外資는 全體의 44%가 財政借款으로, 47%가 商業借款으로 나머지 9%가 直接投資의 方式으로 各各 들어 왔는데 反하여 日本의 경우는 23%가 財政借款, 71%가 商業借款 나머지 6%가 直接投資 方式으로 導入되어 借款形態面에서 兩國이 상당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넷째, 導入外資의 産業別構成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即 1970年 7月末 現在 確定「베이스」導入額 27.3億弗은 産業大分類別로 보아 製造業에 46.4%, 電氣業에 19.9%, 運輸保管業에 15.2%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의 農業 7.1%, 建設業 3.4%, 水産業 2.8% 等의 分布를 보인다. 다시 製造業部門에의 投資中 業種別 構成을 보면 纖維工業(主로 化學纖維系統), 유리 土石業(主로 시멘트業) 및 化學肥料工業의 3個業種이 全 製造業의 45% 以上을 차지하는 集中現象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産業別 導入現況과 關聯하여 指摘되어야 할 한가지 問題는 財政借款은 農業이나 運輸 保管業, 通信業, 建設業 等 社會間接資本 部門에의 投資가 相對的으로 많은 反面 商業借款은 製造業과 電力業에 集中的으로 投入되고 있다는 點이다.

以上의 結果를 綜合해 보면 無償「베이스」의 外國援助減少와 더불어 有償借款으로 轉換되기 始作한 韓國의 外資導入過程은 當初에는 長期 低利의 財政借款-主로 美國의 DLF, AID 公共借款-方式으로 出發하여 1965年 韓日 國交正常化協定을 契機로 主로 日本을 中心으로 한 商業借款方式으로 넘어 왔고 其後 商業借款에 對한 元利金償還問題가 提起됨에 따라 直接的인 元利金償還負擔을 갖지않는 外國人 直接投資方式을 重視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外資의 導入先은 美. 日 두나라가 壓倒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産業別로는 農林, 水産業을 약간 例外로 하고선 2次産業을 中心으로 호텔 住宅 建設業 等「서어비스」業에 이르기까지 導入外資는 國民經濟의 全 分野에 걸치고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여러 側面에서 살펴 본 外資導入의 推移및 現況으로 부터 提起된 몇가지 特徵과 問題點을 要約해 보고자 한다.

첫째, 投資先의 偏重問題이다. 앞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只今까지 機會 있을때마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指摘되어온, 말하자면 이제는 陳腐해진 問題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 日 兩

國에의 偏重으로 具體化된 同 現象의 背景에는 歷史的 地理的 諸與件에 비추어 도저히 不可避했던 要因을 否定할 수 없는 面도 있으나 特히 日本으로 부터의 直接投資導入은 過去의 傳統 그中에서도 產業技術構造가 類似하다는 點에서 事實上 肯定的인 意義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意義는 反面 立場을 달리하고 보면 直接投資에 依한 技術의 隷屬性과 나아가 產業自體의 隷屬性을 가져 오는데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다는 事實로 解釋될 수도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同投資先의 偏重問題는 重視되지 않을 수 없다. [2]

둘째의 特徵的 事實로서는 大部分의 外國人 直接投資가 國內市場指面的으로 되어있고 또 單獨投資의 比重이 상당히 높다는 點이다.

製品의 質 또는 그 供給能力이 어느 程度 問題가 되더라도 國內의 技術내지 能力으로서 供給이 可能한 製品分野에 대해서는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抑制하는 것을 原則으로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直接投資를 받아드리는 經濟的 意義는 先進技術과의 提携를 通해 당해 製品을 窮極的으로 國產化 한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直接投資가 갖는 長點을 살리고 缺點을 排除하려면 單獨投資方式 보다는 合作投資方式이 相對的으로 有利하다고 볼 수 있는데 現實的으로는 單獨投資의 比重이 相當히 높다.

오늘날 後進國의 經濟發展은 흔히 輸入代替產業의 育成으로 理解되고 있고 輸入代替產業은 一般的으로 높은 關稅率의 壁뒤에서 育成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이 境遇에 特히 留意하여야 할 것은 效率이 낮은 企業들이 많이 設立되어 窮極的으로는 全國民經濟의 效率을 削減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憂慮는 特히 外國人 企業體에 흔히 있을 것이다. 後進國의 高關稅率로 因있여 先進國의 工產品輸出이 매우 어려워지자 完製品을 輸出하는 代身에 工場이나 企業을 當該 後進國에 設立하여 높은 關稅率의 保護를 받아 가면서 販路를 開拓하는 경우를 흔히 보는 것이다. 더구나 後進國의 關稅率의 構造는 完製品에 對해서는 매우 높지만 이른바 原資材라고 불리우는 半製品에 對해서는 關稅率이 매우 낮아서 半製品의 加工이나 組立을 爲主로 하는 製造業에 對한 實效保護率이 매우 높다는 것이 一般的인 通例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點이 外國人 企業體에게는 큰 魅力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當該 後進國의 立場으로 볼때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다.

셋째, 同一產業分野에서의 零細規模 投資企業의 亂立狀態를 들 수 있다.

即 1971年 5月末 現在 總 直接投資件數 312件中 投資單位金額 100萬弗 未滿의 投資件數가 全體의 83%를 차지하고 또한 500萬弗 未滿이 96%를 차지하는 實情이다 그中에서도 特히 日本投資의 境遇는 全體의 90% 程度가 投資金額 100萬弗 未滿의 投資로 構成되고 있다.

이와같은 小規模投資는 또한 產業別(業種別)로 보아 農水產業 및 鑛業에의 投資는 全部이고 製造業中에서도 食品工業은 全部 化學, 金屬機械 等의 業種도 90% 內外가 이러한 規模의 投資로 形成되어 있다.

2)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硏究센터 刊, 直接投資의 現況과 問題點 1972, PP. 27~29 參照

低賃金水準을 基盤으로 이처럼 同一產業分野에서의 勞動集約的 小規模 外國人直接投資企業이 亂立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노리는 技術習得效果나 國內 聯關產業에의 波及效果는 거의 期待하기가 어려운 代身 當該 產業分野의 旣存 國內 中小企業의 淘汰를 가져오고 한걸음 나아가 產業政策的 觀點에서의 企業合併, 系列化 等 再編成 措置를 어렵게 만드는 結果만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

넷째로, 外國投資先의 不實問題를 들 수 있다. 即 投資認可後 工場建設이나 操業中斷 等 事業進陟이 不振한 直接投資「케이스」가 許多하다.

直接投資 企業中에도 外國人「파트너」의 不實 또는 無誠意로 말미암아 投資事業 自體가 不振하게 되는 境遇, 이는 外國投資家에게는 別다른 損害가 없다 하더라도 合作을 計劃 내지 推進해온 國內企業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不利益을 招來하게 된다. 外國人「파트너」와 提携할 경우 이 點 事前的으로 留意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라 할 것이다.

2. 國內貯蓄과 海外貯蓄

投資의 源泉으로서의 貯蓄은 經濟成長의 「바로 미터」이다. 貯蓄은 國內貯蓄과 海外貯蓄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國內貯蓄이든 海外貯蓄이든 貯蓄이 있어야 投資를 할 수 있으며, 投資를 해야 國民所得을 높일 수 있고, 또한 產業構造의 近代化를 促進 시킬 수 도 있는 것이다.

R.E.Harrod의 基本方程式, $G=\frac{S}{C}$(所得成長率 G. 貯蓄率 S, 資本係數 C)를 前提로 한다면 $G=\frac{S}{C}$에 있어서 G를 크게 하자면 S를 크게 하거나 C를 적게 해야 할것이다. 또한편 이式은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即 $G=\frac{S}{\frac{\Delta K}{\Delta Y}}$로 할 수 있으며, 이것은 $C=\frac{\Delta K}{\Delta Y}$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G를 크게 하자면 이 公式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指摘할 수가 있다. ① S가 커야한다. ② $\frac{\Delta K}{\Delta Y}$가 적어야 하는데 이것을 爲해서는 ΔK가 적고 ΔY가 커야한다.[3] 그러면 S를 크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經濟發展에는 資本이 必要하고 投資를 하자면은 이에 相應한 貯蓄이 必要함은 말할 것 없다.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貯蓄率은 所得水準의 函數라고 한다. 그러나 Y=C+S (Y는 所得 C는 消費)라는 關係가 있다면 Y=C+S인 까닭에 S는 Y만에 依存하는 것은 아니며 C와도 關係가 있다. 우선 Y라는 所得과 S와의 關係를 생각해 보면 S의 크기는 Y의 分配 關係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點을 Arthur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即 그는 말하기를 "所得不均衡의 函數로서 貯蓄率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은 國民所得에 對한 利潤率의 函數라고도 말하고 있다."[4] 이것은 結局 所得分配率이 다르면 貯蓄이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利潤率이 크면 貯蓄率이 크다는 것은 勤勞所得이 적으면 貯蓄率이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이것은 勤勞所得은 적고 財產所得은 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더 正確히 말하면은 勤勞所得分配率이 적고 財產所得의 分配率은 커야 함을 意味한다. 所得의 不均等은 貯

註: 3) 崔虎鎭敎授, 韓國經濟의 諸問題 (5), 1971, P.33 參照
4) W.Arthur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1955

蓄率을 높인다는데 關해서는 Paul A. Samuelso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所得의 不均等은 貯蓄을 爲한 必要惡,"[5]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Lewis나 Samuelson이 말한 바와 같이 所得分配에 있어서 利潤所得의 分配率이 커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 것인가 하면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理由를 말하고 있다. 資本家의 哲學에는 세가지 原則이 있다. 消費抑制, 가급적 많이 生產하고자 하는 意慾 및 生產的 投資의 選好의 세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에는 確實히 一理가 있다. 小農民이나 賃金所得者들은 資本家的인 企業家들 보다 節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是認할 수 있는 傾向이다. 이런 點에서는 確實히 "儉約은 後進國의 美德이다," 라는 Harrod의 말을[6] 상기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經濟成長을 爲해서는 貯蓄은 增大해야 하고 그것을 爲해서는 利潤所得이 增大되어야 함을 알았다. 이것은 勿論 利潤所得部分은 貯蓄되기 쉽고 投資되기 쉬운 까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理論에 따르면 利潤所得의 增大를 招來할 수 있는 方策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한 方策으로서 생각해야 할것은 利潤이 發生할수 있는 經濟分野를 擴大하는 것과 利潤所得中의 可處分部分을 크게 하는것, 다시 말하면 利潤所得에 對한 課稅를 적게 하는 것등일 것이다.

〔表5〕, 〔表6〕 및 〔도표〕는 1953년부터 1971년까지의 우리나라 經濟成長率 및 投資와 貯蓄率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表를 볼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現象은 6.25에 依한 戰災로 부터의 急速한 復興(1957년~1961)과 그후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은 外國援助와 借款이라는 우리의 貯蓄이 아닌 남의 貯蓄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計劃以前인 1957~61년의 5년간에는 年平

消費率, 貯蓄率 및 投資率

〔表5〕 單位: %

	1957	1958	1959	1960	1961	57~61 平均	1962	1963
GN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率	94.5	95.0	96.1	98.4	96.2	96.2	98.5	93.1
國內貯蓄率	5.5	5.0	3.9	1.6	3.8	4.0	1.5	6.9
海外貯蓄率	9.8	7.9	6.8	8.6	8.8	8.3	11.0	10.6
投資率	15.3	12.9	10.7	10.9	13.1	12.6	13.0	18.4

1964	1965	1966	62~66 平均	1967	1968	1969	1970	1971 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3.0	92.4	88.3	93.1	88.8	88.1	82.8	83.6	85.4
7.0	7.6	11.7	6.9	11.2	11.9	17.2	16.4	14.6
7.4	6.9	8.3	8.8	9.2	11.1	11.1	9.7	11.1
14.6	14.7	21.7	16.6	21.8	24.5	25.1	25.5	25.2

資料: 韓銀, 統計月報, 1972年 3月號에 依據作成 (實數의 差異는 統計上 不一致에 기인함.
1965年不變價格이며 1969年 以後는 經常價格임)

5: Paul, Anthony, Samuelson;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New York, 1948.
6: 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48

均 12.6%를 投資하여 5.0%의 成長率을 達成할 수 있었으나 投資의 源泉面으로 볼때는 國內貯蓄率이 4.0%에 불과한 反面 海外蓄貯이 8.3%에 達하여 남의 貯蓄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一次計劃期間인 1962~66년에도 年平均 16.6%라는 高率의 投資를 하여 8.3%의 高度의 成長率을 維持했으나 이 期間에도 역시 海外貯蓄率(8.8%)이 國內率蓄貯(6.9%)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海外貯蓄 가운데에서는 援助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民間貯蓄 보다도 政府貯蓄에 힘입어 國內總貯蓄의 GNP에 對한 比率이 1957년의 5.5%에서 1966년의 11.7%로 大幅的인 增加現象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投資의 自立度面에서 볼때는 아직도 投資의 半以上을 海外資蓄에 依

국민저축과 해외저축 구성비 및 성장율

〔表6〕 (1965년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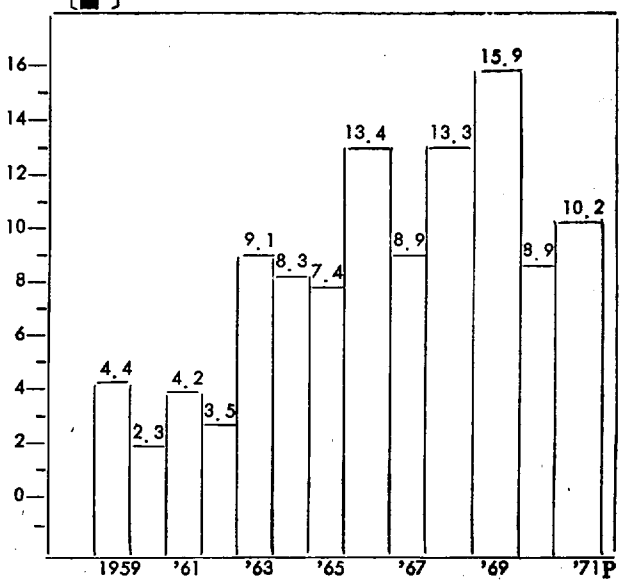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국내총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민저축	59.0	54.8	41.1	—14.4	36.1	38.4	36.5	14.5	29.2	11.4	37.6	48.3	51.3
민간	74.0	77.9	60.6	16.3	56.0	62.5	61.5	33.2	42.8	22.1	39.0	44.8	39.5
정부	—15.0	—23.1	—19.5	—30.7	—19.9	—24.1	—25.0	—18.7	—13.6	—10.7	—1.4	3.5	11.8
해외저축	41.0	45.2	58.9	114.4	63.9	61.6	63.5	78.3	65.2	82.9	58.4	48.6	44.4
순이전	30.2	36.2	47.0	122.3	63.6	69.8	67.0	82.3	69.5	72.9	37.8	43.5	45.5
순차입	10.8	9.0	11.9	—7.9	0.3	—8.2	—3.5	—4.0	—4.3	10.0	20.6	5.1	—1.1
통계상불일치	—	—	—	—	—	—	—	7.2	5.6	5.7	4.0	3.1	4.3
성장율	—	6.0	6.1	1.2	8.8	5.5	4.4	2.3	4.2	3.5	9.1	8.3	7.4

자료: 한은, 통계월보, 1972년 3월호에의거 작성함, 1971 p 의 成長率은 10.2임

1966	1967	1968	1969	1970 p
100.0	100.0	100.0	100.0	100.0
54.4	50.2	49.5	57.3	63.5
41.4	31.1	25.6	36.2	37.4
13.0	19.1	23.9	21.1	26.1
39.3	41.5	43.8	37.3	35.4
26.7	22.4	14.8	11.4	7.9
12.6	19.1	29.0	25.9	27.7
6.3	8.3	6.7	5.4	1.1
13.4	8.9	13.3	15.9	8.9

經濟成長率

〔圖〕



資料: 韓銀, 統計月報, 1972年 2月號에 依據作成함.

存하고 있음을 본다. 即 總投資가운데 國內貯蓄에 依한 投資의 比率이 1957~61년의 年平均 30.8%에서 1962~1966年의 46.7%로 크게 增加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約 50%가량은 海外 貯蓄에 依存하고 있는 事實이다. 美國의 援助가 漸次的으로 크게 줄어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投資의 對外依存度가 별로 줄지 않는 것은 無償援助의 消少를 有償外資導入의 增加로 相殺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有償外資導入으로의 轉換은 一時的이고 또한 不可避한 方便이라 보겠으나 끝내는 輸出增加에 依한 外換과 國內貯蓄에 依해 投資財源을 確保해야 함은 再言할 必要도 없다.

Ⅳ. 國內資本의 動員策

1. 國內資本 動員의 促進方案

가. 貯蓄 및 投資擴大를 爲한 與件造成

① 經濟成長에 對한 貯蓄動因 및 投資動因

한나라 經濟의 高度成長을 爲해서 貯蓄率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新古典學派의 貯蓄動因論과 投資率을 먼저 擴大시켜야 한다는 Keynes의 投資動因說은 서로 對立하고 있다. 이와같은 理論의 對立에 當面하여 우리의 立場은 雇傭增大의 過程에서 漏出 (leakage)과 乘數效果(multiplier effect)의 展開를 더욱 重要視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貯蓄 보다는 投資增大를 中心으로 한 資本動員의 方途를 强調하게 된다. 勿論 貯蓄率을 높이지 않고서는 資本動員의 增大는 不可能한 일이다. 生產能率을 높이고 產出高를 增大시켜 나가려면 資本財의 蓄積이 있어야 한다. 이資本財들은 過去生產物의 蓄積인 것이며, 이것은 消費의 節約과 貯蓄의 增大에 依해서 비로서 可能하다. 그런 論理를 모르는 바 아니면서도 우리는 감히 貯蓄增大에 앞서서 投資擴大를 먼저 追求해야 한다고 力說하는 것이다. 그 理由는 韓國經濟社會의 特性과 生理에서 볼때 投資擴大를 앞세우는 편이 보다 效率的인 貯蓄의 增大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資本蓄積增大의 出發口는 막연한 貯蓄增大方式 보다는 投資의 增大를 먼저 强調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資本은 進步의 必要條件이긴 하지만 充分條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고 R. Nurkse는 그의 「資本形成論」의 序頭에서 말한 인이 있었다. [7]

要는 있는 資本에 對한 活用方向이 問題가 될 것이다. 死藏되는 貯蓄은 經濟成長의 進出力이 될 수 없다. M. Abramovitz는 " 一定期間에 있어서의 資本形成은 貯蓄能力과 貯蓄意慾에 따라서 根本的인 差異가 생긴다. …貯蓄의 增大는 投資에 이바지됨이 틀림없는 事實이나, 消費에서 節約될 資金들은 投資되기 보다는 退藏되는 일이 일쑤이다. " 라고 强調하였다. [8] 貯蓄의 增

7) Nurkse, Ragnar: Pr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Univ. press, N.Y., 1955, P.1.

8) Abramovitz, Moses: Economics of Growth, in Survey of contemporary Economics, Vol. II, Richard D. Irwin 1952, P.147.

大가 退藏되어서는 國民經濟의 循環過程에서 漏出로 처질 뿐이다. 이것은 看過할 수 없는 重要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욱 重要視하는 또 하나의 點은 投資增大를 거듭할 수 있는 環境의 造成이야말로 消費性向을 줄일 수 있는 積極的인 貯蓄增大의 始發點이 된다고 强調하려는 데 있다. 投資誘因에는 分明히 市場規模의 擴大가 하나의 要件으로 包含되어 있다. 이 市場規模는 投資支出의 增大에 依해서도 擴大될 수 있다. 投資增大의 雰圍氣助成과 企業意慾의 積極的인 啓發은 消極的인 耐乏生活 强調보다 몇倍나 큰 貯蓄增大를 가져올 것이라고 韓國經濟社會의 歷史的 與件밑에서 確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막연한 耐乏生活의 强化나 貯蓄增大運動에 精力을 浪費할것이 아니라 먼저 投資가 效率的으로 擴大되어 나갈 수 있는 與件과 環境을 經濟的으로 造成해 나가기를 强調하는 것이다. 이것을 發端으로 하여 投資와 貯蓄의 慣習을 社會的으로 促進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重要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韓國經濟를 混合體制라고 보는 見解가 있다. 5個年計劃이니, 政府企業이니, 統制政策이니 强調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流通面에서는 分明히 自由主義經濟體制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나라에서는 一定한 所得 規模밑에서 支出의 方向을 決定짓고 國民經濟의 循環過程에 가장 큰 影響을 줄 수 있는 것은 干先 價格機構의 所在如何 이다. 價格은 流通뿐만 아니라 生產과 消費를 規制하는 Parameter「파라아미터」이다. 이것은 與件이며 選擇의 指標이다. 自由主義經濟를 運營하는 自動的 調節機能은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價格機構에서 먼저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民經濟의 流通秩序의 安定性을 確保해 주기 爲해서 惡性「인플레이션」의 收束과 價格機構上에서 換率 및 金利에 賦與되고 있는 特惠措置의 止揚 等이 實現됨으로써 韓國 國民은 비로서 貯蓄增大의 基盤을 確保할 수 있음은 勿論이고 合理的 經營과 正常的 投資增大를 진지하게 追求하게 될 것이다. 要는 공짜와 「사바사바」와 射幸的인 不勞所得의 餘地를 最大限度로 壓縮시켜 나가야 한다.

이 모든 整備가 갖추어진 뒤에 國民의 自律的인 投資增大와 아울러 비로서 强制貯蓄의 分野에서도 浪費 없는 效率性이 期待 될 수 있을 것이다. 投資할 수 있는 方途가 擴大되면서 돈을 버는 재미, 事業의 擴張과 繁榮이 눈앞에 있을때 節約과 貯蓄은 强化되기도 하는 것이다. 막연한 貯蓄은 資本形成과 無關한 것이라고 强調하였지만 그 反對로 投資의 方途가 擴大되면서 資本形成이 促進되어 나가게 된다면 그러한 過程에서 비로소 貯蓄은 實質的으로 肥大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强調하려는 것이다.

結局 投資增大를 爲한 與件造成이라고 할때 이것을 經濟的인 與件에 局限시켜서 檢討하자면 韓國經濟의 現實 밑에서 가장 먼저 緊要한 것은 ① 惡性「인플레이션」의 安定化 ② 價格機構의 合理的 活用에 있다고 强調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與件이 確保된다면 貯蓄率의 增大가 期待될수 있다는 것도 重要한 일이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貯蓄의 退藏化 및 分散化를 高度로 是正할 수 있을 것이라는 點이며 效率的인 投資의 增大를 促求함으로써 國內資本이 最大限度로 動員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줄 것이다. 이러한 與件의 造成에 뒤이어서 金融機關, 資本市場, 租稅 및 政

府의 投融資政策 等等의 整備가 갖추어 질때 外國資本의 導入과 아울러 韓國의 資本動員은 보다 順調로운 軌道를 찾을 수 있을것이고 나아가서는 社會 및 政治風土위에 實質的으로 하나의 革新을 結實할 것이라고 期待된다.

2. 金融機構의 合理的인 運營

貯蓄을 增大시키고 이 貯蓄을 效率的으로 投資化시키는 與件 造成中에서 重要視되는 것은 金融機構의 能率的인 活用에 있다. 資本市場의 發達이 뒤떨어져 있는 低開發地域에 있어서는 金融機構가 仲介하는 貨幣的 貯蓄이 곧 資金의 貯水池로서 또 나아가서는 資金의 創造基盤으로서 投資增大에 重要한 役割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近代的 銀行들은 國民大衆의 信用을 얻지 못하고 있다. 特權層에게 特惠融資를 베푸는 權力機構임에 不過하다는 印象이 깊다. 그 原因은 惡性 인플레 累積過程이 貨幣價値를 繼續 暴落시켜 왔으며, 金利體系가 非現實的이 었으며, 銀行의 公信力이 지나치게 적었던데 起因한 것이었다. 따라서 金利機構의 運營을 合理化시키기 爲해서는 前提條件으로 通貨價値의 安定과 均衡性 있는 金利政策의 實施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前提條件의 確保와 아울러 몇가지 對策을 들어 보면 첫째로, 公信力이 增大 둘째로, 銀行機構의 整備와 再編成 셋째로, 銀行去來에 對한 國民慣習의 提高 等이다[9] 通貨價値의 安定 銀行公信力의 增大, 合理的인 金利政策 等이 銀行預金에 對한 安定性과 實利性을 保障하게 되고 國民의 流通去來가 銀行窓口로 集中될 수 있다면 國內資本의 動員은 현저히 促進될 수 있을 것이다.

3. 金利水準의 均衡點 確立

韓國經濟社會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不合理한 金利體係로 말미암아 國民貯蓄이 資金의 貯水池인 銀行을 避하게 되었다는 것은 國民資本을 動員하는 過程위에 커다란 隘路點을 쌓아 올리는 結果가 되었으며, 각별히 低開發國家에서 渴望되는 民族資本의 流動性選好化의 길을 막는것이 되이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投資誘因을 擴大시키기 爲해서는 一般的으로 金利의 引下가 要請된다고 하지만 韓國金融의 경우에는 實質的으로 無利子以下의 金利로서의 貸出業務로 말미암아 비록 特權層에 對한 爲裝需要의 充足은 있었을망정 참다운 投資需要者에게는 貸出이 順調롭지 못했다. 그리고 爲裝需要에 依한 貸出金은 그 資金으로 市中私金融의 財源을 마련 함으로써 結局 眞實한 投資需要者는 이러한 私金融供給에 依存하여 70% 水準의 金利를 負擔하는 結果가 되는 수도 있고, 또는 僞裝需要에 依한 貸出金이 原料, 其他 商品의 買占財源이 되어서 物價上昇을 도발하는 直接原因이 되는 수도 있으며 다시 또 이러한 僞裝需要로 不動產投資를 擴大함으로써 貯蓄의 退藏을 助長시키는 傾向도 큰바 있었다.

韓國의 現行預金金利는 最高 17.4%까지 存在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現下 韓國內의 貯蓄行態

9) 李昌烈, 韓國의 金融과 資本動員, PP. 349~350 參照, 1966

를 볼때 비록 不動產投資는 왕성할망정 定期預金 預入額은 期待하는 만큼은 增加하지 않고 있다. 韓國國民이라고 해서 다른나라 國民과는 유달리 流通性보다도 不動產形態의 貯蓄만을 選好하는 特性이 濃厚한 것은 아니다. 結局 流動性選好는 貯蓄者에게 便宜함과 安全함과 利益됨을 確保해 줄 수 있는 곳에서 비로서 伸張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金利體係의 改善點을 들어보면 첫째, 機械的인 低金利政策을 止揚하고, 金利가 價格機構의 任務를 다 할 수 있도록 彈力性을 차지시켜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복잡한 多元金利體系를 單純化시키며, 合理化 시켜야 한다.

셋째, 均衡金利水準의 算出을 摸索하여 活用하여야 한다. [10]

4. 惡性「인플레이션」의 收束

G.S.Dorrance氏의 論文은 결국 低開發國家에서 인플레가 甚할때 ① 通貨를 負債償還 또는 價値貯藏의 手段으로 保有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② "將次 貨幣의 供給이 急激히 變動하리라고 豫想될 때 貨幣는 그 流通性이라는 屬性을 喪失하게 될 것이다." 라고한 Keynes.J.M의 見解를 强調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③ 經濟開發에 있어서의 딴 要因들이 解決되기 힘들 것이며 ④ 資源이 生產的 方向에 利用되기 힘들것이며 ⑤ 强制貯蓄을 相殺하는 自發的 貯蓄의 減少와 ⑥ 企業의 再投資 및 長期投資의 減退 ⑦ 資本財 生產의 減少 ⑧ 國內投資로부터 海外逃避 ⑨ 政府歲入의 實質額 減少와 政府投資 마저도 萎縮 ⑩ 外國民間資本의 導入難 ⑪ 輸入需要의 激增 ⑫ 經濟의 構造的 歪曲의 深化 等等이 있을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11] 結局 인플레가 經濟發展에 動員될 수 있는 資源을 遞減시키고 繼續 投入되는 資源의 實效를 減退시키기 쉽다는 것을 示唆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貯蓄은 安全狀態에서—— 보다 더욱 적어지기 쉽고 또한 經濟의 適應性을 減退시키고, 最終的인 投資選擇에 있어서 經濟的 判斷基準이 미치는 影響을 惡化시키는 資金形態를 取하기 쉬우며, 그리고 外資의 流入은 減少될 것이며, 外資誘致條件은 앞으로 생길 償還問題에 關하여 더욱 까다롭게 된다고 하였다. 惡性 인플레는 國民의 價値觀念을 基礎로 부터 전복시키고 있다. 浪費는 甚하고, 勤勞意慾은 遞減하고, 自暴自棄와 政治, 社會의 不安을 助長시켜나가고 있다. 모든 問題에 앞서서 貨幣가 그 本然의 機能과 使命을 다하기 爲해 우리는 通貨量에 依해서 物價의 騰落에 조금도 影響을 받지 않도록 當分間 固定시켜 줄것을 要求한다. 年間 通貨量의 增加는 GNP의 增加率과 國民經濟의 商品化率의 增加率을 合한것 이상으로 增加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通貨政策으로서는 너무 硬直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貨幣價値만은 維持한다는 基準이 설때에 모든 餘他의 政府政策은 體系를 이루어 一貫性을 찾을 수 있게 되고 動搖無常한 우리 政治, 社會, 經濟內에서 貨幣價値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國民信賴의 中心이 설때에 安定과 더불어 經濟의 健全한 發展이 始作될 것이다. 끝으로 惡

10: 李昌烈, 韓國의 金融과 資本動員, P.361. 參照 1966

11: Graeme, S.Dorrance: The Effect of Infl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in IMF Staffpapers, March. 1963.

性 인플레를 收束하기 爲해서는 財政金融, 安定政策을 철저히 實踐에 옮겨가야 한다.

5. 資本市場의 健全한 育成

企業體의 資本調達의 方法에 있어서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境遇 最近에는 自體貯蓄의 再投資가 漸次 比重을 더하여 가고 있으며 證券市場을 通한 資本調達方法은 相對的으로, 그 機能이 적어가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企業體의 거의 全部가 自體資金이 不足하고 外部資本에 依存하는 比重이 크기 때문에 企業資本의 動員을 爲한 證券市場의 機能은 극도로 微弱한 形便이다. 證券市場이 民間資本의 動員이라는 本然的인 機能을 正常的으로 發揮해 나가기 爲해서는 干先 正常的인 去來가 可能할 수 있도록 先行的인 還境의 整備가 充足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 先行與件 또는 還境의 整備라고 말하였는데 條目으로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인플레를 收束하고 銀行貸出金利를 現實化 시킬것. ② 特惠金利의 是正과 아울러 形成될 수 있는, 보다 一元的인 金利體系下에서 株式配當金 또는 社債利息이 貯蓄者의 投資意慾을 鼓舞 시킬 수 있도록 造成할것. ③ 低金利銀行貸出을 비롯한 各種 政府特惠를 除去하여 企業利潤의 源泉이 特惠獲得에 있지 않고 生産性을 昂揚하고 企業을 擴大하는데 있다는 것을 企業家로 하여금 認識하게 할것. ④ 政治를 淨化하여 陰性資金 支出의 必要性을 없게 할것. ⑤ 稅制를 改善하여 脫稅하지 않고도 企業利潤이 保障되도록 하고 稅務行政으로 부터 腐敗를 一掃하여 贈賄와 脫稅의 機會를 除去할것⑥ 以上의 諸措處로 經濟分圍氣가 改善되어 企業家의 自覺과 貯蓄者의 企業認識이 向上될것 以上의 諸 先行條件의 解決은 政府의 施策如何에도 달린 것이지만 最善의 경우에도 相當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證券去來市場에 相當한 額의 民間資本을 지금 당장에 增大動員토록 期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으나 證券去來市場을 現狀態대로 放置하여 둘 수는 없다. 現在와 같은 投機市場으로 放置한다는 것은 善意의 貯蓄者에게 공연한 被害를 끼칠 可能性이 크며 社會道義에 미치는 惡影響이 크다. 또한 모처럼 活用될 수 있는 民間資本動員의 近代的 機構를 忘却하는 行爲이기 때문이다.

6. 政府經濟施策의 一貫性 確保

나. 既存資本의 動員과 實物貯蓄의 投資化

1) 退藏貯蓄의 動員

韓國社會에서는 資本不足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强調되고 있다. 그렇지만 韓國에는 有效하게 動員되지 못하고서 退藏되어 있는 既存資本들이 韓國 自身의 所得規模에 比例하여 明白하게 存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投資의 機會를 擴大해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動員될 수 있는 部分이다. 家計에서는 相對的으로 많은 耐久消費財들이 保有되어 있다. 農村社會에서의 分散的인 實物貯蓄과 아울러 都市生活者의 民間貯蓄分이 不動産, 貴金屬 等으로 退藏되어 있는 것도 많다. 심

지어는 市中銀行과 一般企業에 있어서조차 非生產的인 建物投資에 過大한 資金을 投入시키고 있으며 保險會社의 資產은 不動產投資에 壓倒的 多額을 運用하고 있으며, 國民貯蓄 組合資金 또한 호텔建築費로 支出된다는 것이 韓國에 있어서의 自然스러운 趨勢인 것이다.

過去의 貯蓄과 새로운 貯蓄들을 莫論하고 보다 效率性이 높은 生產部門에도 誘導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韓國의 資本動員에 있어서 가장 緊要한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歸結이라고 하겠다.

2) 農家 實物貯蓄의 流動性 貯蓄化

韓國經濟는 農業偏重의 產業構造를 가지고 있다. 零細 農家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크다. 그들은 生產物의 商品比率이 적으며 따라서 貨幣經濟의 發展度가 얕다는 點에 留意해서 資本形成의 過程을 생각해 볼 때 同種產業 內部에서의 直接的인 實物投資 以外에는 貯蓄增大의 機會가 현저히 좁아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實物去來를 通해서도 生活必需品을 爲主로 하는 消費物資의 流通은 營爲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物貯蓄을 蓄積시켜서 異種產業에로 投資進出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實物貯蓄을 流動性 貯蓄으로 轉換 시키기 위해서는 流動性의 價値安全과 아울러 그 便宜度를 높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具體的으로는 인플레 收束과 아울러 金融 및 資本市場의 機構發展이 先行되어야 하며 또한 金利政策의 行方如何에 絕對的인 影響을 받을 것이다.

3) 不動產 投資의 是正方案

不動產投資가 盛行되고 있는 理由를 分析하여 볼때 經濟的 後進國家에서 一般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① 企業意慾의 薄弱 ② 保守的인 價値貯藏習性 ③ 投資機會의 狹少 ④ 惡性 인플레 累積過程下의 價値保全 ⑤ 銀行의 不動產擔保融資偏重 (④와 ⑤는 韓國經濟社會에서) 에 主原因이 있는 것이다. 韓國에서는 不動產投資가 가장 安全한 價値保存策이 되고 있는 同時에 保險會社等에 依하여 인플레 累積下에서 名目的 價値增殖의 好目標가 됨으로써 一種의 不動產投資「부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形便이다. 不動產投資에 偏重되고 있는 國民貯蓄을 效率 높은 部門의 投資로 誘導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貨幣價値의 保全對策에 全力할 것이며, 둘째 不動產特히 非生產的인 住宅擔保에 偏重되는 融資方式을 是正하여야 하며, 셋째로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金利體系를 確保함으로써 流動性 貯蓄의 增大를 助成토록 하고 끝으로 資本市場의 發展을 合理的으로 推進시킴으로써 民間貯蓄의 企業加擔의 機會를 擴大하여 주는 길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不動產投資에 貯蓄이 集中되는 傾向을 助長시키고 있는 것은 住宅을 中心으로 하는 不動產擔保의 貸付가 盛行하고 있다는 點에 큰 要因의 하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過剩人口의 資源化

人口는 見解에 따라서는 資源이라고 解釋될 수가 있다. A. H. Hansen 敎授는 "美國經濟가 沈滯로부터 好景氣와 繁榮으로 轉換해나가는 過程에서 人口의 多少가 얼마나 큰 促進劑가 되었던 가를

强調 했던 것이다. „[12] 人口는 旣存蓄積의 富와 同一視될 수 있는 存在이다. 人口를 勞動力으로 이끌어 들이지 못할때 이런 경우의 人口는 資源의 구실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消費增大의 觸媒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過剩人口를 勞動力으로 轉換시켜 나가는 길은 人口를 活用하는 投資率의 增大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投資方向의 選擇 問題가 重要視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人口는 敎育水準이 比較的 높은 地位에 있다. 지금 世界 先進 各國의 國民所得은 현저히 上昇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各국 國內 物價水準이 急騰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곧 勞賃水準에 있어서 先, 後進國家의 距差를 크게 하고 있으며 必然的으로 勞動輸出과도 같은 輸出產業의 育成이 要請되는 것이다. 保稅加工業의 振興方向으로 投資를 誘導시켜 나가는 것도 人口資源을 活用 시킬 수 있는 方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 民間部門의 消費節減과 投資增大

1) 民間投資의 健全한 增進

投資誘因의 不足과 아울러 惡性 인플레이션은 累積을 거듭하고 資本市場 및 金融市場의 低位發達이 加重되고 있는 環境 밑에서는 貯蓄이 가령 利息增大를 爲하여 投資에 積極的으로 加擔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健全性 있는 投資라고 하기보다는 흔히 投機의 길로 흐르는 傾向이 濃厚하였다. 惡性인플레 下에서의 投資는 名目價値로는 恒常 곱배기장사를 노리기 일쑤였고 또 政治 및 經濟의 一般與件이 安定性을 잃고 있을때 國民들은 浮動的인 機會를 捕促하여 一獲千金을 노리려고 드는 것이 오히려 當然之勢였던 것이다.

特惠나 利權에 依存하는 民間投資는 浪費에 흐르기 쉽고 無責任한 投機로 始終케 할 염려가 크다. 民間投資를 健全하고 合理的인 것으로 이끌기 爲해서는 自己資本의 負擔을 正當하게 負荷시켜야 하는 것이며 金利및 換率의 現實化와 지나친 獨占利潤의 排除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2) 民間消費의 節約과 貯蓄增大

民間部門의 消費節減에 成果를 올리기는 政府部門에서 보다 훨씬 힘이 든다. 모든國民들의 自覺과 參與로 國民을 이끄는데는 政府의 主導的인 役割이 必要한 것이다. 政府部門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對策들은 政府貯蓄을 增大하는데 必要할 뿐만 아니라 그大部分이 民間部門의 消費를 節減시키는데, 그리고 그 方向으로 國民의 自覺과 參與를 促進시켜 나가는데 大端히 重要한 役割을 할 것이다. 첫째로 政府가 設定한 貯蓄의 目標와 政府및 民間의 貯蓄目標는 國民이 이에 志向할 根據와 參與의 程度를 明示하여 준다. 둘째로, 政府豫算의 果敢한 切減과 各級 公務員의 公的, 私的 生活面에 나타나는 革新은 國民들의 새로운 消費生活의 基準이 될 것이다. 生活水準을 낮추는 것이 힘든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國民 特히 都市民에게는 現在와 같은 消費生活을 繼續하는것 역시 大端히 困難한 處地에 몰려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收入을 超

12) Hansen, A. H,;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Macmillan, 1941, P. 40

過하는 消費支出의 繼續은 돈벌이 보다 고통스러운 借入을 繼續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苦痛스럽고 不自然한 畸型的인 消費生活은 社會에 同調만 發見하면 正常化하기 쉽다. 政府에서 그리고 公務員들이 消費生活改善과 따라서 消費切減에 率先하면 國民은 기꺼이 이를 따를 것이다. 셋째로, 赤字要因을 政府部門에서 驅逐하고 더나아가 政府貯蓄을 올림으로써 인플레가 收束됨에 따라 國民의 貨幣價値에 對한 再認識과 金融資產에 對한 選好가 커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投機慾 代身에 自發的인 貯蓄慾이 대두될 것이다. 解放以來 繼續된 인플레下에서 助長된 投機慾과 浪費癖이 가시는 데는 時日을 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民族에 底流하는 强한 貯蓄慾은 安定된 社會的 經濟的 基盤과 貯蓄하는 方便만 提供하면 비록 貧困속에서나마 貯蓄은 成果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넷째로 인플레의 收束은 物價의 急激한 變動을 막고 價格메카니즘이 작용할수 있게 하므로써, 經濟循環을 正常化하게 하는 重要한 第一步다. 인플레收束으로 經濟循環의 正常化, 健全化의 第一步를 디딘 후에는 金利, 換率, 勞賃, 其他 經濟 諸要因의 正常化와 經濟機構의 整備로 이를 完成함으로써 貯蓄을 促進시키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租稅政策이다. 우리나라 經濟體制로서는 直接消費行爲에 干涉할 수 없고 또 하여서는 안되므로 租稅를 通한 도움을 必要로 한다. 消費基準을 設定하고 그 以上의 消費에 對하여서는 奢侈性에 따라 高率의 消費稅를 부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政治와 政府의 腐敗 없는 明朗化로 浪費는 극히 縮少된다. 民間部門의 모든 貯蓄의 源泉이 극히 작을 것인데 比해서 한가지 큰 項目은 人口增加率의 抑制다. 人口增加率이 年 3%로 부터 2%로 준다는 것은 國民所得이 1%增加 한다는 것 보다 經濟生活과 貯蓄에 더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不合理한 社會傳統과 慣習을 通한 浪費가 節約되어야 한다. 家計의 貯蓄은 動員하기가 특히 後進國에서는 거의 不可能하다고 한다. 그러나 家計貯蓄의 動員이 不可能할 程度로 韓國은 後進國은 아닌듯 하다. 二次大戰後의 獨逸과 日本國民들의 창상이나 勤勉性과 耐乏生活을 想起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라. 資本의 動員促進과 府政의 役割

우리나라 政府의 役割은 바로 後進經濟가 當面한 開發意慾과 現實的 與件間의 矛盾에서 規定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政府는 民間의 消費水準을 强制로 切下시킴으로써 民間의 貯蓄을 增大시킬 뿐 아니라 政府가 直接 貯蓄의 主體로서 資本蓄積에 寄與해야 한다. 둘째로, 合理的인 資源配分을 위한 政府의 積極的인 參與이다. 資源部分의 合理化를 爲한 政府의 積極的인 參與는 市場機構의 相對價格變動이 社會的 投資基準과 顯隔한 乖離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 提起되므로 經濟의 構造와 與件이 不安定한 나라일수록 더욱 强調된다.

Hirchman은 이를 "後進經濟에 있어서 私的費用과 社會的費用의 乖離로 說明하고 市場機構를 통하여 이 乖離가 資源의 浪費로 나타나는 媒介因子로서 潛在失業으로 因한 賃金率 格差, 歪曲된 稅率, 不安定한 利子率 構造(特히 銀行金利와 關聯하여)等을. [13] 들고 있다. 民間投資가 資

13) A.O.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ov., 1958, P.76 照參

源의 浪費를 가져오는 具體的인 現象을 Liebenstein은 두가지를 들고 있다. "그는 後進經濟의 民間投資는 極히 安定的인 產業과 極히 投機的인 產業의 兩極에 集中되는 傾向이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極히 安定된 部門에 對한 投資傾向은 經濟的, 社會的 不安에 依해서 격화되는 것으로서 價格과 需要가 安定된 部門, 말하자면 土地投資가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하겠다. 土地投資의 增加는 地價 上昇과 人口增加를 誘發할 뿐 아니라 非農業部門에서의 雇傭機會를 減少시킨다. 다음으로 極히 投機的인 投資로서는 短期的 商業資本과 같이 그 投機의 性格이 短期性을 띤 것을 指摘하고 있다. „[14] 이와 같은 資源의 浪費를 어떻게 是正할 것인가 하는 것은 財政政策의 主要한 課題이며, 後進經濟下의 財政政策은 資本主義國家에서 一般的으로 云謂되는 私經濟의보호와 調整뿐 아니라 經濟開發의 前衛로서의 積極的 課題에 當面하고 있다. Hirschman은 이와같은 後進經濟下의 政府役割을 "促進的 刺戟을 注入하여 經濟發展을 先導하고 事態의 推移에 따라 이 壓力을 緩和 또는 調整. „[15] 하는 二重的 役割로 說明하고 있다.

今後 援助의 減少가 不可避한 現象을 合쳐서 생각할때 하루속히 最少限度로 不可避한 政府서어비스 生產에만 局限하고, 그 生產에 最大의 合理化를 期함으로써 政府支出을 無慈悲하게 縮少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强力한 政府 首腦部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마. 外國援助의 投資活用

本稿에 있어서는 外資導入에 關해서는 다만 그것이 國內資本動員 위에 어떠한 促進效果를 가져올 수 있었던가에 局限해서 言及하고자 한다. 이제 國民資本의 動員은 促進시켜 나가기 爲해서 消費보다도 貯蓄과 投資의 增大가 훨씬 主要視되고 있는 見地에서 볼때 外國援助와 外國借款을 또는 나아가서 外國導入 物資를 國內의 資本動員에 效果的으로 活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外換率의 正常化가 갈망된다. 이것은 輸入物資選定을 直接的으로 콘트롤 하는 것보다도 앞서는 對策이다. 外換率의 正常化水準은 國民經濟의 一般的 均衡發展을 前提로해서 策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 均衡點은 事前計劃에 依해서 確定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試行錯誤를 合理的으로 是正해 나가는 過程이 必要하다. 外換率의 均衡點이 確立되면서 外資導入產業의 選定順位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2. 그 問題點

以上 여러가지 側面에서 살펴본 國內 資本動員의 促進方案으로부터 提起된 몇가지 問題點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의 政治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 現與件下에서 個人貯蓄率의 倍增은 可能한것인가? 換言하면 인플레를 통한 强制貯蓄을 排除해 나갈 수 있느냐? 貨金上昇率이 物價上昇率에

14: H. Lieben 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1957, P. 53.
15: A. O. Hirschman, Ibid. P. 22

따르지 못하는 現象을 일으키지 않고도 經濟發展을 爲한 投資率을 높여 갈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根本的으로는 所得이 늘어야만 이에 따라서 貯蓄도 늘 수 있다. 投資가 增加해야 그 波及效果를 통해 所得이 많아지고 그 結果 投資增加와 맞먹는 貯蓄增加가 그림자 처럼 따르기 마련이다. 先投資, 後貯蓄의 過程에서 增加된 貯蓄을 어떤 經路를 통해서 完全히 資本動員에 吸收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問題인 것이다. 이를 吸收 할려면 廣義의 金融機關 (間接金融, 直接金融, 長·短期金融機關 等) 이 完備되고 諸機能이 發揮되어야 하는데 이는 遼遠한 느낌이든다. 低所得, 人口增加, 大家族扶養이란 어려운 條件下에도 不拘하고 韓國사람의 貯蓄習慣은 결코 日本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金融 메카니즘의 不完全을 反映하여 相當한 資金이 金融機關들밖에서 헛돌고 있을 따름이다. 農村의 貯蓄은 貧農에게 高利貸付되거나 資產價値의 保全을 爲해 在庫投資로 變하고 都市에서는 莫大한 遊休資金이 非生產的인 不動產投機로 變하고 相當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곗돈이 金融機關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商工業者의 運營資金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金融의 二重構造를 一元化해서 資金을 動員할 수 있느냐가 時急한 當面課題인 것이다. 그런데 政府는 個人貯蓄을 財源으로한 計劃을 세워놓고 民間經濟에 積極的으로 關與하는, 人爲的 貯蓄計劃目標 達成을 强行하고 있다. 이는 金融메카니즘을 無視한 것이며, 金融의 二重構造를 더 깊게 할 따름이다. 稅金처럼 源泉徵收해가는 國民貯蓄組合預金, 公務員俸給의 預金通帳制, 稅率引上 같은 添加貯蓄制 等은, 預金形態의 變化, 他預金을 一時的으로 犧牲시켜 特定預金을 늘리는 것, 正의 貯蓄에 對한 다른한면의 負의 貯蓄現象에 不過하며 이것만으로는 貯蓄性向을 提高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금같은 半强制貯蓄增强 奬勵策은 再考되어야 한다. 두차례의 通貨改革은 고사하고라도 無責任한 인프레 政策의 繼續은 銀行等 金融機關에 對한 不信을 助長했고 〃消費는 美德, 貯蓄은 惡德〃이란 風潮를 부채질 했을 따름이다. 金融「메카니즘」을 復活한다는 것은 곧 金融機關의 活動을 多樣化해서 豫想收益率과 危險度에 따라 現金, 不動產, 其他 有形資產, 預金, 國債, 生保, 株式 等 個人資產保有形態를 얼마든지 變容, 選擇할 수 있게 融通性을 줌으로써 個人의 自發的인 貯蓄을 誘導 完全히 吸收 할 수 있는 基本施策을 세워 間接統制 方式을 活用한다는 말이다. 自發的인 貯蓄體制가 갖춰지지 않는 限 격심한 投資 인프레가 생기거나 成長目標의 達成은 困難하리라고 본다.

둘째, 貯蓄主體와 그 方法에 關한 問題點이다. 이제까지 韓國의 貯蓄增大는 主로 稅收增大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國民擔稅率은 1967年의 12.3%에서 1970年에는 15.9%로 上廻하게 되었다. 〔표7〕과 〔표8〕 참조 그 結果로 國民貯蓄의 增加는 政府貯蓄의 增加를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民間部門 特히 個人部門은 國民貯蓄을 增大시킴에 있어 거의 참여하지 못해왔다. 이처럼 貯蓄增大 努力이 稅收增大를 통하여 强制貯蓄中心으로 하여 왔으나, 이러한 貯蓄動員方式은 어느程度 限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問題點은 두가지 면에서 說明할 수 있다. 먼저 韓國의 擔稅率이 이미 15.9% 水準을 上廻하게 됨으로써 稅收의 所得彈力性은 今後 차츰硬直化될 것이며, 따라서 國民貯蓄增大에 있어서 政府貯蓄이 中樞的인 役割을 할만큼 앞으로 稅

收를 繼續增加 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點이다. 根本的으로, 租稅收入이 民間의 生産活動에서 나오는 것인만큼 國民生産의 極大化라는 見地에서 볼 때 稅收增大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다.

조 세 부 담 율 추 이

〔表7〕 單位: 억원

	1967	1968	1969	1970 P
국 민 총 생 산	12,424	15,757	20,471	25,459
1. 중 앙 정 부	1,392	2,107	2,871	3,742
국 세	1,292	1,943	2,628	3,441
전 매 익 금	100	164	243	301
2. 지 방 재 정	138	193	266	295
국세부담율 (%)	10.3	12.3	12.8	13.5
조세부담율 (%)	12.3	14.6	15.3	15.9

주 1: 조세는 최종예산수치임
자료: 경제기획원간, 경제백서, 1971. P140

各國의 GNP에 對한 擔稅率 (1) (1966年)

〔表8〕 (%)

	平 均 擔 稅 率	限 界 擔 稅 率
파 키 스 탄	10.2	12.6
印 度	11.7	8.7
타 이	12.1	12.2
필 리 핀	12.9 (2)	17.9 (3)
自 由 中 國	14.4 (2)	16.9 (5)
말 레 지 아	17.0 (3)	13.7 (3)
실 론	18.6	17.8 (5)
한 국	15.3 (4)	23.5 (4)

資料: 필리핀, 말레지아, 自由中國은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1966.
其他國은 Statiscal yearbook, 1966에서 作成
①地方稅 包含, 印度와 파키스탄은 NNP에 對한 %임 ②1965年 ③1964年 ④1969年 ⑤1962~65年平均

다음으로 貯蓄增强努力의 轉換이 必要하다고 보는 두번째 根據는 韓國經濟의 現段階와 與件에 關聯된 것이다. 即 政府貯蓄 中心의 資本動員은 原則的으로 國民所得中 前近代的 部門이 支配的이어서 政府가 傳統的 部門의 資源을 租稅로 吸收하여 이를 近代化部門에 供給하는 경우에 큰 意義를 지닌다. 19世紀 後半의 日本이 그 典型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現段階는 近代的部門이 支配的이며 特히 稅收를 通한 資本蓄積에 있어서 農業의 役割은 오히려 소극적이다. 이러한 경우 稅收를 통한 政府貯蓄은 近代的部門의 資源을 同一部門에 移轉하는 相對的인 意義밖에 없다. 이러한 與件 위에서 貯蓄을 가장 合理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機構는 政府보다도 金融市場이나, 資本市場과 같은 民間의 自律的 機構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通貨, 物價와의 關聯下에서 貯蓄動員方式을 調整할 必要가 있다. 이제까지는 間接稅政策이 消費抑制에 充分한

實效를 거두지 못해왔다. 그것은 流動性을 팽창시켜 왔기 때문에 物價安定을 위해서 不得已 하였다. 다시 말하면 通貨量을 늘려 인프레 要因을 源泉的으로 注入시켰기 때문에 物價를 安定시키기 爲해서는 間接稅率을 消費抑制에 實效를 거둘 수 있는 水準까지 올릴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循環過程下에서는 消費抑制에 實效를 期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國際收支에 負擔을 주게 된다. 따라서 今後에도 通貨量을 規制하여 物價上昇要因을 源泉的으로 除去하고 그 代身 間接稅率을 消費抑制에 實效를 거둘 수 있는 水準까지 올리는 貯蓄動員方式이 소망스럽다. 物價에 미치는 兩者間의 차이는 같다고 前提하더라도 經濟構造, 貯蓄, 國際收支 等에 미치는 效果는 判異하며 特히 個人部門의 貯蓄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循環方式의 採擇은 大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들수 있는 問題點은 政府가 意圖하는 社會間接資本의 形成과 基幹産業의 建設을 爲해 莫重한 外資가 必要한 것은 事實이나 外資의 吸收能力 即 外資의 效率的 使用을 爲한 內資調達의 問題解決에 앞서 外資導入에 過熱意慾을 나타냄으로써 급기야는 必要한 內資까지 外資導入으로 調達하려는 現金借款의 便法까지 登場 하였으며 外國人의 貯蓄에 依해 增加된 所得인양 政府消費에 탕진하는 오늘의 消費風潮를 是正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다.

V. 結　　論

以上에서 敍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昨今에 일어나고 있는 世界經濟의 움직임은 우리의 安易한 國內資本形成 方法을 許容치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美國은 動搖하는 弗貨價値의 防衛를 爲해 外援削減과 其他의 間接的인 政策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赤字의 最大要因인 民間資本流出을 막기 爲한 直接手段을 採擇했음은 勿論 最近에는 弗貨評價切下를 斷行 했으며, 數年前의 英貨의 平價切下에 刺戟된 高金利競爭은 餘他諸國에 弗貨不足을 招來했으며, 그 結果로 國際金融에 緊縮이 招來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使用할 수 있는 外資量을 減少시켰을 뿐만 아니라 先進諸國으로 부터의 借款條件을 더욱 不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此際에 이것을 轉機로 하여 海外貯蓄의 依存度를 낮추고 진지한 態度로 國內資本의 動員問題와 對決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現在 우리에게 주어진 經濟現實과 與件에 立脚하여 貯蓄과 投資를 增大시켜 나가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根本的으로 ① 政府 및 民間의 消費節約이 强化되어야 할 것이며, ② 民間의 投資慣習이 보다 合理的인 것으로 培養되어야 할 것이며, ③ 政府部門에서 强行되고 있는 投融資에 經濟的 合理性이 提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모든 部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現實은 한마디로 해서 오로지 浪費와 退藏이 거듭되는 弊端이 많다.

民間과 政府와의 兩部門에 있어서 거듭되고 있는 浪費와 退藏의 傾向을 막고 貯蓄과 投資의 增大를 效率的으로 助成시켜 나가기 爲해서는 첫째로, 冠婚喪祭와 敎育費에 對한 民間의 過大支出

을 抑制시키도록 하고, 둘째로, 不動產投資와 換物思潮를 是正시키고, 셋째로, 企業家精神의 昂揚과 健全한 投資風潮를 育成시키고, 넷째로, 政府投融資에 對한 經濟的效率이 國民資源의 合理的 再分配를 나타냄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위에 뚜렷한 實績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成果가 具顯化되기 爲해서는 우리 나라의 實情으로 미루어 볼때 우선 緊急히 要望되는 것으로, ① 流通秩序의 安定化 및 價格機構의 合理性을 確保함과 아울러, ② 金融機構의 運營을 合理化 시키고, ③ 政府經濟施策에 있어서 長期的인 一貫性을 確保함에 依하여 家計와 企業에게 明確한 企劃과 期待를 갖도록 하고, 同時에 所得分配의 均衡接近과 國民經濟의 循環上에 自動的 調整機能을 最大限 發揮할 수 있도록 함이 渴望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對策들이 確保되는 날에는 特惠와 不正腐敗가 發生할 要因들이 大幅 是正될 것은 勿論이요, 國民의 勤勞意慾과 貯蓄心이 提高될 수 있는 基盤을 確立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貯蓄및 投資에 關聯된 低開發國의 一般的 特性으로는 첫째, 所得水準의 低位, 둘째, 零細所得層分布의 比重大, 셋째, 非貨幣的인 實物流通 比重大 넷째, 企業家精神의 薄弱, 다섯째, 市場規模 및 投資誘因의 過少, 여섯째, 貯蓄의 退藏化 傾向濃厚, 일곱째, 消極的 資產保存欲과 猪突的 投機心과의 兩極偏頗選擇, 여덟째, 金利의 二重構造, 아홉째, 價格體系의 不安定 等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韓國經濟에서 엿보이는 새삼스러운 特徵으로서는 열번째, 惡性 인플레이션의 長期慢性化, 열한번째, 自由經濟體制이면서도 價格機構의 不合理한 背離現象, 열두번째, 外援의 浪費와 消費水準의 過大 열세번째, 國防費負擔의 過重, 열네번째, 政府의 消費的 經常費支出의 過多, 열다섯번째, 民間의 冠婚喪祭 및 敎育費 支出의 過大 열여섯번째, 政治情勢의 不安定 等이 重要視된다. 우리나라의 國內資本動員을 促進시켜 나가려는 마당에서 이와같은 特徵的인 與件들은 愼重히 檢討되어야 한다. 于先 우리는 强制貯蓄에 對하여 關心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强制貯蓄보다도 自發的 貯蓄을, 强制投資 보다도 自發的 投資를, 民間資本의 自意에 依한 資源의 效率的인 再分配過程을 더욱 重要視한다. 經濟發展이란 그냥 얻을 수 있는 自由財가 아니라 피눈물나는 代價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가장 高貴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例컨데, 第二次 世界大戰後 西獨經濟는 國土의 兩斷과 莫大한 戰爭破壞로 거의 瀕死狀態에 빠져 있었으나 "Rhein江의 奇蹟"을 이룩하여 오늘날 經濟的인 大繁榮을 享有하고 있으며, 가까운 이웃인 日本도 二次大戰後 거의 再起不能의 悲慘한 經濟狀態를 克服하여 오늘날 이른바 "神武以來의 好景氣"를 맛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피눈물 나는 莫大한 努力의 代價인 것이다. 此際에 우리는 子孫萬代의 福祉와 우리 民族의 至上課題인 勝共統一을 成就하기 爲하여서는 "經濟自立"이 時急한 課題이므로 이의 早速한 達成을 爲해서는 國內資本의 動員에 온 國民이 最大의 心血을 기울여야 된다는 點을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